지상백고좌

전 영축총림 율주 중산 혜남 대종사

“초심 잊은 사람에게 미래는 없다”



혜남 대종사는… 1943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1963년 관룡사로 출가했다. 1967년 월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0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강원을 졸업하고 선방에서 정진한 뒤 1977년 해남 대흥사 강원에서 운기 스님으로부터 전강(傳講)한 이후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승가대학 학장과 영축총림 율주를 역임했다. 지금은 마치지 못한 공부를 마무리하기 위해 무문관에서 수행 중이다.

만날 인연은 어떻게든 만난다. 이 진리를 다시 확인한다.

제방에서 존경받는 어른으로 꼽히는 전 영축총림 율주 중산 혜남 대종사를 뵙기 위해 지난 여름부터 연락을 드렸지만, 쉽게 연결이 되지 않았다. 무문관에 계시니 연락이 될 리 없었고 해제 후에는 전국을 다니며 불자들을 제접하는 일정이 많아 뵐 수 없었다. 말 그대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락을 드리니 또 무문관에 가신다고 해 급하게 차를 달렸다.

설악산의 가을은 눈부셨다. 형형색색의 생명체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얼굴을 내밀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겨울이 얼씬도 못 할 정도.

바람과 함께 백담 계곡을 달렸다. 물빛은 찬란했다. 백담(百潭) 하나 하나에 생명이 스며들어 있었다. 산에 오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에도 활기가 가득하다.

자연이 만들어 낸 그림을 보며 달리다 보니 어느새 백담사다. 백담사에는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수행처 무금선원(無今禪院)이 있다. 1971년 당시 조계종 종정이던 고암 스님이 신흥사 교구에 선원건립의 원을 세웠고 이 뜻이 전법제자인 성준 스님에 이어졌으며 다시 설악무산 스님이 원력을 이어받아 1998년 무금선원을 열었다. 무산 스님은 오늘날의 설악산 불교를 연 개산조다.

“천방지축(天方地軸) 기고만장(氣高萬丈)/허장성세(虛張聲勢)로 살다보니/온 몸에 털이 나고/이마에 뿔이 돋는구나/억!”이라는 열반송(涅槃頌)을 남기고 2018년 5월 26일 입적한 설악 무산 대종사는 평생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백담사 무금선원과 신흥사 향성선원을 개원하는 등 설악산을 지키며 선풍(禪風)을 진작했다.

‘무금’은 ‘무고무금(無古無今)’을 줄인 말로 ‘본래 성품은 맑고 고요해서 예도 없고 지금도 없다’는 뜻이다. ‘시간의 흐름이 멈춰버린 선원’이라고도 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일거에 꿰뚫어버리는 선원’이라고도 한다.

무금선원은 무문관(無門關)과 기본선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문관은 말 그대로 폐문정진(閉門精進)하는 곳이다. 매철 10여 명의 스님들이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수행한다. 두 평 크기의 독방 10칸의 문은 모두 바깥에서 잠겨 있다. 하루 한 번 오전 11시가 되면 음식이 들어가는 공양구(供養口)만이 외부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다.

‘무금선원에 앉아/내가 나를 바라보니//기는 벌레 한 마리/몸을 폈다 오그렸다가//온갖 것 다 갉아먹으며/배설하고/알을 슬기도 한다’

무산 스님의 시 ‘내가 나를 바라보니’에는 무문관의 ‘결기’와 ‘고독’이 온전히 담겨있다.

동안거를 하루 앞둔 백담사는 차분했다. 11월 15일 결제법회에서 새 조실로 영진 스님을 추대한다는 안내 현수막마저도 흔들림이 없었다. 백담사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마당에서 혜남 스님을 만났다. 간절한 염원 끝에 만나서인지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하지만 반전의 대화가 시작됐다.

“이 나이가 되면 제일 잘하는 게 뭐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지팡이를 어디 뒀는지 잘 모르겠네. 하하.”

지팡이의 행방(?)은 금방 파악됐다. 지팡이를 다시 잡은 스님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나는 발이 네 개야.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걸어요. 하하.”

처음 발심한 마음이 바로 ‘깨달음’
본래부터 움직임 없는 것이 ‘부처’
초심을 생각하는 삶과 생활 돼야

2023년부터 안거에 무문관 정진
80세 노구에도 正覺 목포로 수행
“더 늦기 전에 화두와 한판 대결”

스님의 유쾌한 말씀을 따라 걷다 보니 백담사의 한적한 찻집이다.

“무문관이 바로 극락(極樂).”

젊은 수좌스님들도 힘들어한다는 무문관에 세수 80이 넘은 노스님이 입방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혜남 스님에게 단도직입으로 여쭈었다. 도대체 왜?

“여기 백담사 마당에 매월당 김시습, 설잠 스님의 시 ‘저물 무렵’이 적힌 시비(詩碑)가 있습니다.”

‘천 봉우리 만 골짜기 그 너머로/한 조각 구름 밑 새가 돌아오누나//올해는 이 절에서 지낸다지만/다음 해는 어느 산 향해 떠나갈거나//바람 자니 솔 그림자 창에 어리고/향 스러져 스님의 방 하도 고요해//진즉에 이 세상 다 끊어버리니/내 발자취 물과 구름 사이 남아 있으리.’

“설잠 스님의 시가 제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수좌의 마음, 운수납자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출가할 때부터 저의 목표는 도(道)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강사(講師)와 율사(律師)로 나름대로 잘 살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아쉬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화두와 한판 대결을 해볼 생각입니다. 하하.”

혜남 스님은 2023년부터 무문관에 방부를 들이기 시작했다. 백담사스님들의 배려로 하안거와 동안거를 나고 2024년 여름은 천성산 조계암 무문관에서 정진했다. 그리고 다시 백담사로 왔다.

“이 나이에 큰 선방에 앉으면 오히려 대중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무문관을 선택했어요. 저 스스로 오롯이 화두에 집중할 수 있고, 대중들도 하루 한 끼 공양 외에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으니 서로 좋은 일입니다.”

이야기를 이어가던 혜남 스님이 오현 스님의 시 한 편을 들려줬다. ‘마음 하나’라는 제목의 시다.

‘그 옛날 천하장수가/천하를 다 들었다 다 놓아도//한 티끌 겨자씨 보다/어쩌면 더 작을//그 마음 하나는 끝내/들지도 놓지도 못했다더라’

“달마 대사는 ‘밖으로는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는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이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가히 도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外息諸緣 內心無喘 心如墻壁 可以入道)’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문관이야 말로 달마 대사의 말씀처럼 공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살아보니 무문관이 극락입니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 계곡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만 들어도 좋습니다. 창문 사이로 보이는 나무도 좋고, 겨울에 내리는 눈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눈이 쌓이면 여기 마당은 마치 하얀 카펫을 깔아놓은 것 같습니다. 문이 잠겨 감옥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저만의 극락 속에 있는 기분입니다. 정신이 열리고 헐떡거림이 없으면 무문관이 가장 자유로운 곳입니다.”

혜남 스님은 “무문관에 다니면서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졌다. 더 짱짱해진 느낌이다. 3개월에 한 번씩 만나는 신도들도 건강해 보인다고 말한다”며 웃었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문득 궁금해졌다. 왜 젊은 청년은 도인(道人)이 되기를 서원하며 출가했을까?

13면에 계속

대행 스님 법어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스님 초창기 법문의 정수가 담긴 결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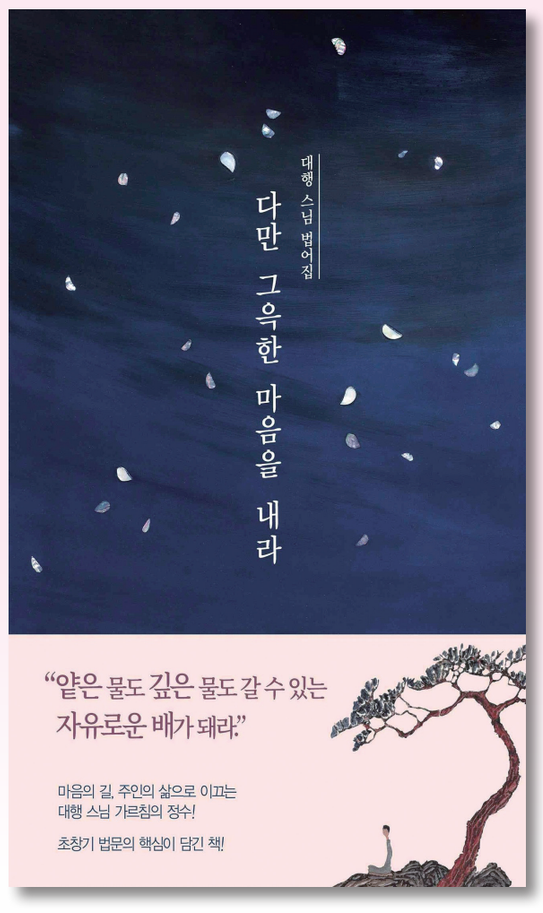
“얕은 물도 깊은 물도 갈 수 있는
자유로운 배가 되어라.”

마음의 길, 주인의 삶으로 이끄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

스님께서 30여 년에 걸쳐 설하신 방대한 법문을
근간으로 하여 그동안 여러 형태의 책들이 나왔습니다.
생생한 육성 그대로 담아 낸 법문집들은 마음공부를 하는 이들에게
든든한 길잡이이자 무한량의 자원이 되어 줍니다.
그러나 스님은 알음알음에 빠지는 것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경을 보되 누가 보는가를 바로 알아야 하고, 목마를 때 스스로
물 한 컵 들이킬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또 한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으며 그 말씀에 담긴 깊고 간곡한 뜻을 다시 새겨보게 됩니다.

〈책을 펴내며〉 중에서

정가 18,000원 / 375쪽 /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